

“홍콩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 일국양제 하의 독특한 강점” 발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7월 30일 “홍콩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 ‘일국양제’ 하의 독특한 강점”(https://www.hkeconomy.gov.hk/en/environment/index.htm)을 발표하였으며, 홍콩의 최신 발전 상황과 비즈니스 강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사회적 안정 회복 및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을 강조하였다.

2021년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독자들이 최근 홍콩의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홍콩의 제도적 강점과 ‘슈퍼 커넥터’ 및 ‘슈퍼 가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24년 해외 모회사 소유의 홍콩 기반 기업 수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여 약 1만 개에 달하고, 스타트업 수는 약 4,700개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홍콩은 다양한 인재 유치 제도를 통해 약 33만 명의 인재를 유치하였다.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폴 찬 재정사장의 개회사



폴 찬 재정사장(중앙)은 알제는 아우 상무경제발전국장(좌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



보고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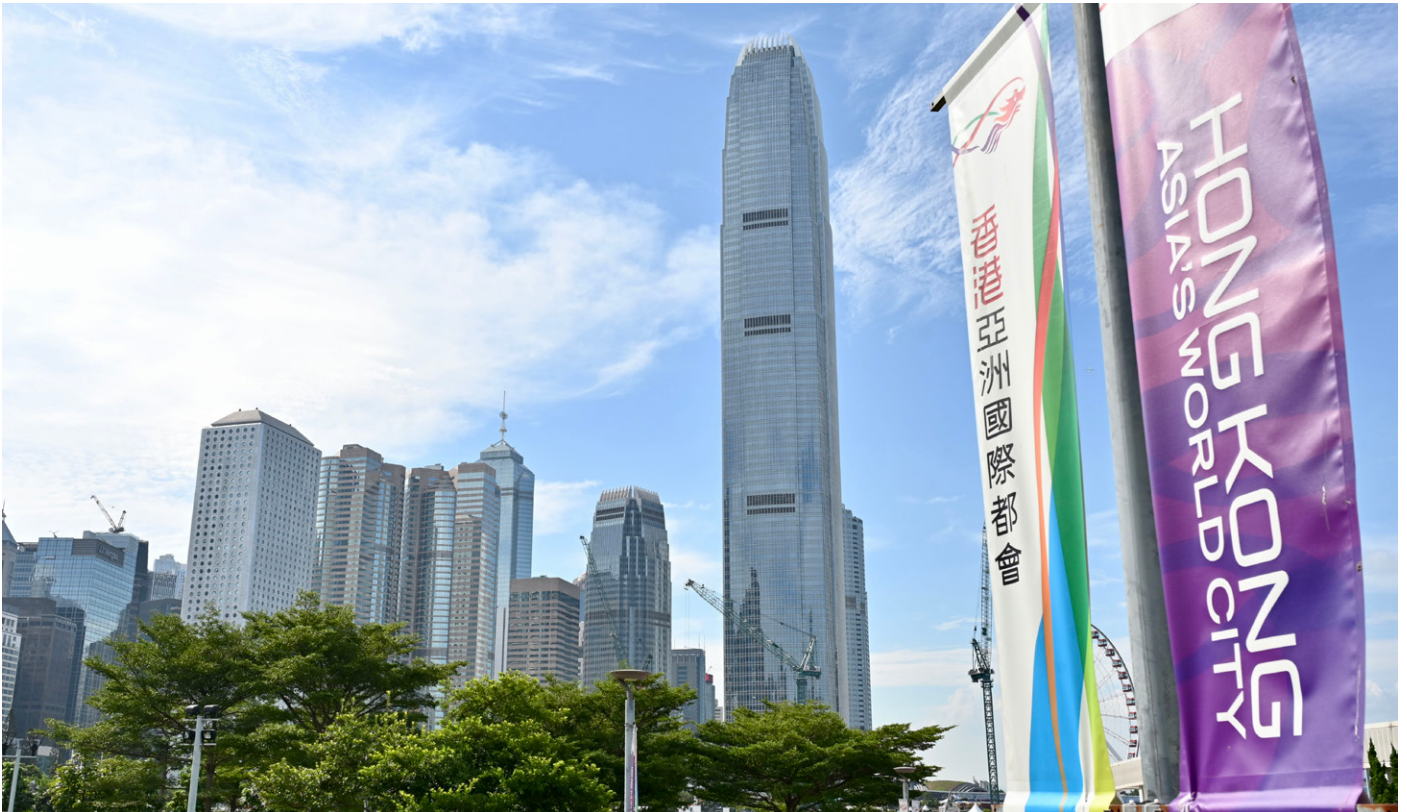


홍콩, 2025 세계 경쟁력 연감서 세계 3위 기록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홍콩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세계 5위에서 두 단계 상승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상위 3위권에 복귀한 것이다.

홍콩의 경쟁력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99.2점으로, 전년 대비 7.7점 상승하며 세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선전-홍콩-광저우 혁신 클러스터를 글로벌 1위로 선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에서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혁신 역량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입지와 더불어, 아시아의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드 운용 분야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중국 본토와 홍콩의 강점이 결합되면서,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입시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25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 발표

홍콩 고등교육, 탁월한 성과로 정부 정책 효과 입증

국제 고등교육 평가기관인 콰렐리 사이먼즈(QS)가 발표한 '2026년 세계대학순위'에서 홍콩 대학지원위원회(UGC)의 지원을 받는 5개 대학이 세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홍콩의 국제

인재 허브로서의 입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홍콩을 교육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홍콩대학교의 순위는 세계 11위로 6계단 상승했으며, 홍콩중

문대학은 32위로 4계단, 홍콩과학기술대학은 44위로 3계단 각각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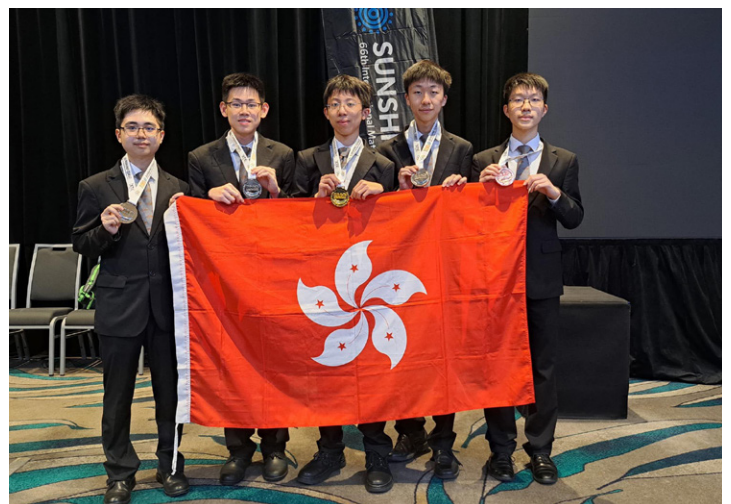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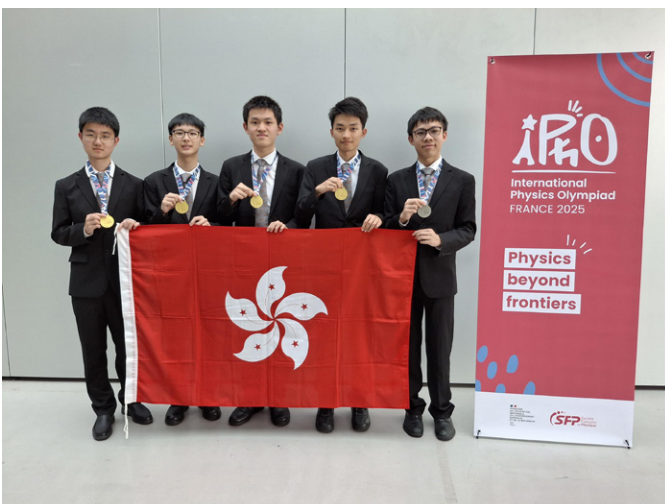


홍콩 두 대표팀, 국제 물리·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두각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과 영재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지난 7월 열린 국제 물리 및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홍콩 학

생 11명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쾌거를 거뒀다. 프랑스에서 열린 물리올림피아드와 호주에서 개

최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 학생들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최육린 교육국 국장은 평가했다.



물리올림피아드와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홍콩 학생 대표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서울에서 한-홍콩 비즈니스 오찬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폴 찬 재정사장의 방문 기간 7월 9일 서울에서 한-홍콩 비즈니스 오찬을 공동 개최하였다. 금융·산업·무역·혁신기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찬에서 폴 찬 재정사장은 국내 비즈니스 커뮤



내빈 150여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오찬

니티를 대상으로 홍콩의 최근 경제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홍콩의 활기찬 문화적 풍경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홍콩 방문을 독려했다. 한편, 서울시 주용태 경제실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허브로서 서울과 홍콩이 각자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

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아주통상팀장 이승륜 팀장은 참석한 비즈니스 대표들에게 한국



오찬에 참석한 폴 찬 재정사장(좌측에서 두 번째), 서울시 주용태 경제실장(우측에서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아주통상팀장 이승륜 팀장(좌측에서 첫 번째), 그리고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우측에서 첫 번째).

과 홍콩간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이날 오찬 행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홍콩 재정사장의 방한 주요 내용

폴 찬 재정사장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찾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홍콩의 최근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홍콩의 주식 및 금융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비즈니스 오찬에서의 연설을 포함해, 찬 재정사

장은 기관 투자자, 금융 기관, 펀드 산업, 벤처 캐피털 부문, 그리고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하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금융 발전 및 상호 관심사인 규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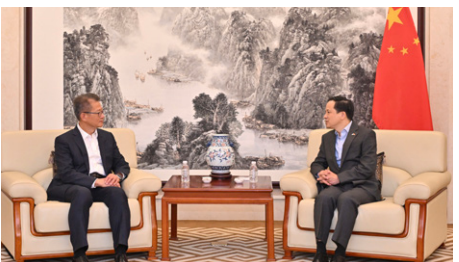
아울러, 찬 재정사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를 방문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 프로젝트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찾았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와의 면담



네이버 방문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의 접견

홍콩 혁신기술산업부 장관, 인천에서 개최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참석

홍콩 혁신기술산업부 장관 쑨 둥(孫東) 교수는 8월 4일 한국 인천에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쑨 둥 교수는 관련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이 현 시대를 규정짓는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AI 주도의 시대에 대비하

여 필요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포트에 설립된 AI슈퍼컴퓨팅 센터와 InnoHK 플랫폼 산하 2개의 연구 클러스터 조성(이 중 하나는 AI와 로봇공학에 중점) 등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으며, 홍콩 생생형 AI 연구개발센터와 홍콩 AI 연구개발원의 유치도 언급하였다.



8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 참석한 쑨 둥 교수. 회의 중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좌측)과 교류하는 모습.

홍콩위크 2025@서울, 홍콩의 문화예술적 강점 및 다양성 선보일 예정



개막 공연 홍콩발레단의 <로미오+줄리엣>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홍콩위크 2025@서울(Hong Kong Week 2025@Seoul)이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무용·음악·영화·중국 영화·만

화·패션 디자인을 아우르는 14개 프로그램을 통해 총 65회의 공연 및 활동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홍콩의 문화예술적 강점과 다양성, 그리고 동서양이 어우러진 홍콩의 창의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리오 쿠오크만, 선우예권 &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 현대 작품과 낭만주의 고전이 어우러진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영화 상영 프로그램 <감성 여정 - 국경을 넘나드는 홍콩 영화 | 한국 편>에서는 1967년 작품 <영웅본색>의 4K 디지털 복원판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사진: <영웅본색>의 스틸컷. (사진 제공: Film Magic Pictures Limited)

중국 현대미술 거장 우관중 국내 첫 단독전, 예술의전당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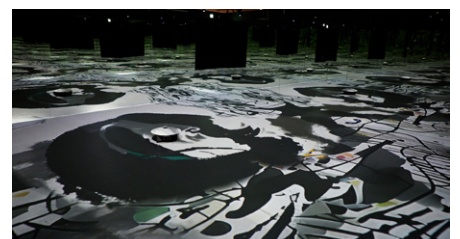
<우관중 미술 후원 해외 전시 시리즈: 우관중: 흑과 백 사이>가 7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우관중(1919~2010)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중국 및 국제 미술계의 거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홍콩예술박물관(Hong Kong Museum of Art, HKMoA)의 한국 첫 전시로, 홍콩예술박물관이 소장한 우관중의 대표작 17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이 전시는 홍콩 위크2025@서울의 사전 행사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우관중 예술후원

(Wu Guanzhong Art Sponsorship)의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홍콩 아티스트 장한경정(Chris Cheung Hon Him)이 제작한 몰입형 설치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원점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지역 언론 및 핵심 오피니언 리더(KOL)들과 함께 전시 미디어 데이에 참석하고 지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서울 방문 중 한국예술위원회, 한국은행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후원 방문자 프로그램

후보자에 대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또한, 서울시 주용태 경제실장과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과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홍콩 위크 2025@서울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사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우관중의 상징적인 작품 - Two Swallows (두 마리 제비) (1981)



장한경 (h0nh1m) | XCEED
Sentient Pond - Seoul Edition (감성의 연못 - 서울 판)
2025인터랙티브 몰입형 인스톨레이션



7월 24일 개최된 전시 미디어 데이

홍콩문화박물관, 1,500만 번째 관람객 맞이 및 개관 25주년 특별전 개최

홍콩문화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은 올해 7월 23일, 누적 관람객 1,500만 명 돌파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홍콩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엄선된 전시품들이 공개된다. 대표적으로 신계 지역의 마을 생활상을 보여주는 120년 된 객가식 혼례 가마와 1910~1920년대에 제작된 해청 의상이 소개된다. 이 해청 의상은 손으로 직접 그린 모란과 공작 무늬가 장식된 초기 광둥 오페라 의상으로, 정교한 장인정신이 깃든 걸작으로 평가된다.



전시 중인 120년 전통의 객가식 혼례 가마로, 가마의 나무틀에는 혼인을 축하하는 길상 무늬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전시 중인 해청 의상으로 손으로 직접 그린 모란과 공작 무늬가 장식된 초기 광둥 오페라 의상이며, 정교한 장인정신이 깃든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홍콩의 활기찬 바(Bar) 문화 속 칵테일 바 ‘몬타나’ 신규 오픈

세계적인 바텐더이자 믹솔로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로렌조 안티노리(Lorenzo Antinori)와 시모네 카포랄레(Simone Caporale)가 홍콩 소호(Soho)에 새로운 칵테일 바 ‘몬타나(Montana)’를 오픈했다. 올여름 문을 연 ‘몬타나’는 세련된 분

위기 속에서 수준 높은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목 높은 칵테일 애호가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홍콩은 미식과 나이트라이프를 아우르는 세계적 명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칵테일 바 ‘몬타나 (Montana)’ 홍콩 소호에 오픈

〈구룡성채: 영화의 여정〉영화 세트장 전시



〈구룡성채: 영화의 여정〉



평 미우링 레저문화서비스부 부국장(우측 첫 번째), 10만 번째 방문객(가운데)을 맞이하며 기념품을 전달

〈구룡성채: 영화의 여정〉영화 세트장 전시가 8월 18일,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구룡성채: 무법지대〉의 인기 장면을 재현한 이번 3년 장기 전시는 이발소, 치과, 정글원, 어묵 공장 등 영화 속 주요 공간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또한,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의 소리와 풍경을 구현한 몰입형 공간을 마련해 과거 구룡성채의 생생한 분위기를 되살리고 있다.

‘치이카와 데이즈’ and ‘전시회’

8월 한 달 동안 K11 MUSEA와 침사추이 하버 프론트에서 대규모 테마 전시 ‘CHIIKAWA DAYS’가 개최되었다. 전시는 의(Clothing)·식(Food)·주(Shelter)·행(Action)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치이카와의 대표 장면들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나가노(Nagano)는 홍콩만을 위한 특별한 ‘암차(YUM CHA)’ 작품을 선보였으며, 하카우와 시우마이 등 홍콩 전통 디저트로 변신한 사랑스러운 치이카와와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홍콩에서 열린 사우디 슈퍼컵

지난 8월 23일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 슈퍼컵 결승전에서 스타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두 골을 터뜨리며 홍콩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지만, 우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반 41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자 3만여 관중이 일제히 환호했으며, 알나스르(Ah-Nassr)는 알아흘리(Ah-Ahli)를 앞서갔다. 그러나 전후반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나면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이날의 영웅은 알아흘리의 골키퍼 에두아르 멘

디였다. 멘디가 결정적인 선방을 펼치며 브라질 출신 측면 공격수 갈레노의 결승골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하며 2016년 이후 첫 사우디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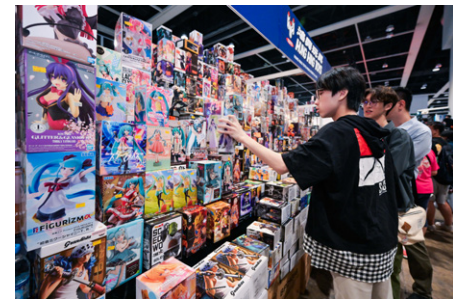


2025 애니컴 & 게임즈 홍콩

제26회 애니컴 & 게임즈 홍콩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160개 업체와 780여 개 부스가 참여해, 수만 명의 팬들에

게 전 세계의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문화를 선보였다.



SPOTLIGHT HONG KONG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

홍콩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판다 '지아 지아(Jia Jia)'와 '더 더(De De)'가 8월 15일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홍콩관광청은 일련의 홍보 활동을 펼쳐 도시 전체를 대규모 생일 파티장으로 만들었다. 아기 판다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홍콩 전역에 판다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kgreet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kgreetskorea/

이메일: seoul_enquiry@hketotyt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to.gov.hk/korea